

8 교양교육, 학습자 요구 반영 어떻게?



2018년 후마 재도약 실행위원회(TF)가 교육과정 개편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교양강의 개설 학생 의견 반영할 소통 창구 필요

이봄 기자 lbom.kr@khu.ac.kr

교양 강의 개설에 학생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하는 분야의 강의 건의할 기회 부족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최재웅(한의학 2021) 씨는 “입학 전부터 교양으로 생활경제 관련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배분이수에 원하는 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예진(국어국문학 2019) 씨 역시 “평소 관심 있던 미술사와 관련된 강의를 찾았지만 개설된 강의를 찾지 못 했다”며 “원하는 강의가 뚜렷이 존재했지만 학교 측에 교양수업 개설에 대한 의견 전달 창구를 찾지 못해 답답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재학생 A 씨는 “폐강 여부에도 학생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의 개설 초기 단계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는 교양강의 개설에 학생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편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는 교양 배분·자유이수 강의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후마 대학생위원회를 통해 배움학점제 과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받고 있을 뿐이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이준서 씨는 “교양 배분·자유이수 강의 개설에서 후마 대학생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는 종학생회(총학)의 설문조사로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나, 총학을 제외하면 별도 소통 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2021학년도에는 총학 측이 신규강좌개설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신설 교양과목이 없었다. 2019년도에는 총학의 설문조사로 신규 강좌가 3개 개설됐으나, 총학이 학생들의 의견

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국캠 후마 오상민 행정실장은 “2020학년도에는 총학 측에서 비대면수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해 신규강좌 개설과 관련한 요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후마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개편을 앞두고 2018년에 후마 재도약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위원회에는 각 분과별로 서울·국제캠 총학 추천학생 2명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후 개편 결과를 바탕으로 후마 측과 학생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학생단체 측은 “TF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미 개

편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입되었다”며 후마의 소통 부족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총학 개최 공모전 이후 학교 측 의견 창구 '아직'

지난해 9월 서울캠 총학이 개최한 ‘학생들이 만드는 배분/자유이수 공모전’은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학교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설계해 실제 교실까지 이어져 온 첫 사례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지난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인 ‘한국수화언어와 농문화’는 강의 평가점수 97점 이상으로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이며 마무리됐다.

해당 수상작의 팀원인 허지영(한

의학 2019) 씨는 “평소 후마 교양과목 중에서 장애인의 이해를 돋는 수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허씨는 “직접 원하던 강의 개설에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해당 과목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허 씨는 “서울대, 고대 등 많은 학교에서 이미 학생 요구에 따라 관련 강의가 개설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우리학교도 해당 공모전을 발판 삼아 학생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설계하고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학교의 강의 공모전은 학교가 아닌 총학이 주체가 돼 지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교양강의 공모전은 학교 측이 아닌, 당시 총학 측 교과과정심의위원회장이 총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총학은 당초 공모전을 일회성에 그친 단기 행사로 기획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서울대나 성신여대, 한양대 등은 모두 각 학교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내 기관에서 공모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은 2019년에 수요자 중심의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학생이 바라는 교양과목 공모전’을 개최했고 수상작 중 2개 과목의 개설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8월 2일 제2회 학생이 바라는 교양과목 공모전’을 개최하며 해당 공모전을 이어가고 있다.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은 2018년에 학생 교양교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해까지 총 3회의 교양교과 공모전을 진행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 학생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요구와 관련된 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과목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다른 연구는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수렴되고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진정으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유연한 교육 운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 후마 측은 “교양과목의 다양성을 위해 총학 공모전 결과를 반영, 교과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 강의 인력이 부재하고 교양 과목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서울캠 후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교양강좌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